



THE UNITED

MONTHLY MAGAZINE
2018.06 / 제4호



2018 SEASON

2018시즌 경기일정
2018시즌 선수명단

KEY PLAYER INTERVIEW

‘대표팀 깜짝 발탁’ 문선민
“러시아 월드컵에 꼭 나가고 싶다”

ROOKIE INTERVIEW

임은수, “인천은 내게 많은
도움을 준 팀이다”

TRAINING TIP

이승재 트레이너가
알려주는 꿀! TIP! - 무릎



INCHEON UNITED MATCH SCHEDULE

03월 03일(토) 16:00	2 강원 : 인천 1	춘천송암
03월 10일(토) 14:00	3 인천 : 전북 2	인천축구전용
03월 17일(토) 14:00	0 인천 : 대구 0	인천축구전용
04월 01일(일) 14:00	1 서울 : 인천 1	서울월드컵
04월 07일(토) 14:00	2 인천 : 전남 2	인천축구전용
04월 11일(수) 19:30	0 인천 : 상주 1	인천축구전용
04월 14일(토) 16:00	4 제주 : 인천 2	제주월드컵
04월 22일(일) 16:00	2 인천 : 수원 3	인천축구전용
04월 25일(수) 19:30	2 울산 : 인천 1	울산문수
04월 29일(일) 16:00	2 인천 : 경남 3	인천축구전용
05월 02일(수) 19:30	0 포항 : 인천 0	포항스틸야드
05월 05일(토) 14:00	1 인천 : 제주 2	인천축구전용
05월 13일(일) 14:00	3 상주 : 인천 2	상주시민
05월 20일(일) 14:00	인천 : 울산	인천축구전용
07월 07일(토) 19:00	전북 : 인천	전주월드컵
07월 11일(수) 19:30	인천 : 강원	인천축구전용
07월 14일(토) 19:00	경남 : 인천	창원축구센터
07월 18일(수) 19:30	수원 : 인천	수원월드컵
07월 22일(일) 18:00	인천 : 서울	인천축구전용

07월 25일(수) 19:30	인천 : 포천	인천축구전용
07월 28일(토) 19:00	전남 : 인천	광양축구전용
08월 04일(토) 19:00	인천 : 포항	인천축구전용
08월 11일(토) 19:00	대구 : 인천	대구스타디움
08월 15일(수) 19:30	인천 : 상주	인천축구전용
08월 19일(일) 19:00	강원 : 인천	춘천송암
08월 22일(수) 19:30	인천 : 전남	인천축구전용
08월 25일(토) 19:00	제주 : 인천	제주월드컵
09월 02일(일) 18:00	인천 : 울산	인천축구전용
09월 15일(토) 16:00	인천 : 수원	인천축구전용
09월 22일(토) 14:00	포항 : 인천	포항스틸야드
09월 26일(수) 16:00	서울 : 인천	서울월드컵
09월 30일(일) 16:00	인천 : 경남	인천축구전용
10월 06일(토) 14:00	대구 : 인천	대구스타디움
10월 20일(토) 14:00	전북 : 인천	전주월드컵



K리그 1(클래식) 스플릿 라운드 경기 일정은
10월 이후 발표 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추가 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www.incheonutd.com)를 통해 추가 및 변경되는 경기일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INCHEON UNITED 2018 SQUAD



박성철 감독대행
COACH



임중용 코치
COACH



권찬수 코치
GK CO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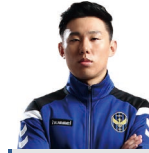
자스민 코치
COACH



이승재 AT
ATHLETIC TRAINER



이동원 AT
ATHLETIC TRAINER



김현진 AT
ATHLETIC TRAINER



1 정산
GOALKEEPER



21 이진형
GOALKEEPER



31 이태희
GOALKEEPER



2 노성민
DEFENDER



3 김용환
DEFENDER



5 강지용
DEFENDER



6 최종환
DEFENDER



15 김대중
DEFENDER



16 이윤표
DEFENDER



20 부노자
DEFENDER



26 광해성
DEFENDER



32 명성준
DEFENDER



33 정원영
DEFENDER



44 김정호
DEFENDER



47 김동민
DEFENDER



4 한석종
MIDFIELDER



8 이정빈
MIDFIELDER



10 아길라르
MIDFIELDER



14 윤상호
MIDFIELDER



17 고슬기
MIDFIELDER



18 박종진
MIDFIELDER



22 김동석
MIDFIELDER



24 이우혁
MIDFIELDER



25 김석호
MIDFIELDER



39 임은수
MIDFIELDER



40 최범경
MIDFIELDER



7 송시우
FORWARD



9 무고사
FORWARD



11 박용지
FORWARD



13 김진야
FORWARD



19 쿠비
MIDFIELDER



23 김덕중
MIDFIELDER



27 문선민
FORWARD



28 이호균
FORWARD



29 김보섭
FORWARD



30 김혁중
FORWARD



36 김대경
FORWARD



37 이호석
MIDFIELDER

이승재 트레이너가 알려주는 꿀! TIP!

무릎

-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모든 질환, 무릎 관절증
- 무릎관절염 자가진단 및 예방 운동
- 불안한 무릎 잡아주는 테이핑



이제는 날씨가 풀리면서 진짜 봄이 온 것 같다. 겨울 내내 추위로 굳어있는 근육과 관절들이 서서히 풀리며 봄나들이, 등산, 자전거, 스포츠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면 그동안 약해진 무릎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다.

축구선수들은 봄 날씨가 되면 활동량 및 훈련 양이 증가한다. 운동량 증가로 강직되었던 무릎관절을 많이 사용하면서 무릎통증을 호소하는 선수가 많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한 연구 기관에 따르면 실제로 봄철에 무릎관절증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한다고 한다. 무릎 관절증이란, 무릎관절에 염증이 발생해 무릎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통증 및 질환을 일컫는다.

먼저, 무릎의 관절연골 마모로 연골 밑에 뼈가 노출되어 관절 내 염증이 발생해 통증과 퇴행적 변형이 유발되는 퇴행성 무릎관절염이 있다. 이는 주로 나이가 들면서 겪는 노인성 질환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게도 이러한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운동선수, 여성, 과체중인 사람들은 특히 퇴행성 무릎관절염에 취약하다. 먼저, 운동선수는 무릎에 충격이 가해지는 점프-착지동작, 회전하는 움직임과 빈번한 스포츠 외상에 의해 연골판, 인대, 활액막, 관절낭의 구조적 및 기능적 병변을 많이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 무릎 주변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들이 약해 구조적 불안정성을 가지게 된다.

이는 X 혹은 O다리라고 하는 무릎 관절에 변형을 가져오고 보호 기능을 못해 무릎에 부담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과체중인 사람의 무릎도 마찬가지다. 체중이 1kg 증가하면 무릎이 버텨야 하는 하중은 거의 3kg가량 늘어난다. 여

기에 움직임과 운동 시 무게가 더해지면 몇 배로 무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체중으로부터 충격을 완화해 주고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며 안정성을 제공하는 반월판 연골의 손상이 있다. 반월판 연골은 무릎관절 사이에 있는 반달 모양의 연골로 안쪽과 바깥쪽에 하나씩 위치한다. 반월판 연골의 손상은 충격과 회전에 의한 운동 중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고 이외에 외상없이 무릎에 누적된 부하로 연골 자체가 퇴행되는 경우가 있다.

무릎관절에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내측부 및 외측부 인대는 무릎 전체를 감싸주며 전후 내외 측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인대들의 손상은 주로 운동 중 외상에 의해 발생한다. 외부 충격에 의해 무릎 관절 자체가 뒤틀리고 과하게 꺾이는 경우나 비접촉성 손상으로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때 혹은 점프 후 착지할 때 주로 발생한다.

무릎관절의 퇴행적 변화 및 외상 초기에는 통증 증세가 있지만 마약하고 간헐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서 대부분 환자들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방치된 무릎관절에는 퇴행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심한 경우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선수들의 경우 무릎관절에 통증이 발생하면 초기에 병원에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는다. 가장 좋은 방법은 퇴행 및 손상이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않고 본 운동을 하기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스트레칭 이후에 스포츠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평소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무릎을 중심으로 하여 허벅지 앞, 뒤, 좌우로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주면 무릎관절을 보다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무릎 손상 증상(자가 진단법)

1 무릎 관절염

- 무릎에 통증이 있고 붓기가 있다.
-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각도가 줄어들었다.
-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
- 다리가 휘거나 질퍽거린다.

2 전방십자인대 손상

- 인대가 뚫히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고,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다.
- 서있거나 내딛을 때 무릎이 지탱하지 못하고 갑자기 구부러지고 보행이 불가능하다.
- 무릎 내 관절에서 출혈이 생기며 부종과 무릎 주위에 검푸른 멍이 생긴다.

3 반월판 연골 손상

- 무릎관절 전체가 붓고 뻣뻣해지며 빠근한 통증이 있다.
- 운동 중 갑자기 무릎이 구부러지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는다.
- 무릎 움직일 시 소리가 나고 갑자기 힘이 빠진다.



무릎 불안정성 테이핑



- 테이핑 하고자 하는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고 약간 체중을 실어줍니다. (준비자세)
- 무릎뼈 아래 정강이뼈 돌출된 부위에서부터 허벅지 앞까지 무릎을 지나도록 잡아 당겨서 붙여줍니다.



- 무릎 관절을 감싸도록 무릎 뼈 아래쪽에 겹치도록(2장) 가로방향으로 붙입니다.



- 무릎을 기준으로 사선방향 아래로 정강이뼈 부위부터 무릎뼈 아래를 대각선 방향으로 지나가도록 붙입니다. (무릎관절에 X자가 그려지도록)



- 허벅지 앞쪽에서 시작하여 무릎 뒤쪽을 돌아 무릎뼈 주변을 잡아주는 8자 모양으로 갑아줍니다.



- 환자가 느끼는 테이핑 강도에 따라 2~3바퀴 감아주고 시작부위 반대편인 정강이뼈 아래부분에서 마무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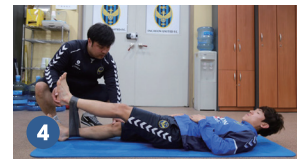
이승재 트레이너가 알려주는 꿀 TIP!
무릎편에 함께 해준 김진아 선수

무릎 관절염 예방 운동



누운 자세에서 한발 들어 올리기

1. 바닥에 편안하게 눕는다.
2. 무릎을 펴주고 발목을 몸 쪽으로 당긴 상태를 유지한다. (다리 양 쪽에 밴드를 걸어준다.)
3. 허벅지 앞 근육에 자극을 느끼면서 천천히 다리를 들어준다.
4. 양 발을 번갈아 가면서 운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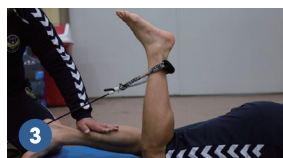
엎드린 자세에서 다리 뒤로 차기

1. 바닥에 엎드린 자세를 유지한다.
2. 밴드를 한쪽 발목에 걸어 저항감을 주고 같은 쪽 발뒤꿈치에 밴드를 위치시킨다.
3. 다리를 뒤로 차주면서 무릎을 펴준다. 허벅지 뒤쪽 근육과 엉덩이 부위에 자극을 느끼면서 천천히 다리를 뒤로 차준다.



앞으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 접기

1. 앞으로 완전히 누워 팔을 가슴 앞으로 모아 중심을 잡는다.
2. 발목 뒤쪽으로 밴드를 걸어 저항감을 준다.
3. 발뒤꿈치를 엉덩이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구부린다.
4. 무릎 뒤쪽과 허벅지 뒤쪽에 자극을 느끼면서 천천히 운동한다.





INTERVIEW

‘대표팀 깜짝 발탁’ 문선민, “러시아 월드컵에 꼭 나가고 싶다”

올 시즌 인천유나이티드가 펼치고 있는 공격 축구의 중심에는 ‘워닝메이커’ 문선민이 있다. 지난해 4골을 뽑아냈으나 올 시즌에는 벌써 6골을 뽑아냈다. 자연스레 인천 팬들의 함성 소리는 더 커졌다.

이러한 활약을 토대로 문선민은 러시아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에 깜짝 발탁되는 영예를 함께 안았다. 상대 수비진을 휘젓는 개인기술 뿐 아니라 득점 후 다양한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팬들을 즐겁게 만드는 문선민. 인천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문선민을 UTD기자단이 만나봤다.

2002 월드컵 4강 신화 보며 축구선수 꿈 키워

문선민은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서 진행한 ‘2011 더 찬스 오디션’에서 기회를 받아 오늘날 프로 무대를 밟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축구를 시작하는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에 UTD기자단은 가장 먼저 문선민에게 축구를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 물어봤다.

문선민은 “어렸을 때부터 구기 종목을 좋아했다. 그 중 특히 축구를 좋아했고 해가 질 때까지 공을 차곤 했다”며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2002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낸 것을 보면서 축구선수의 꿈을 키웠고 그렇게 축구를 시작했다”고 덧붙혔다.

인천 입단을 통한 K리그 입문...성공적인 안착

문선민은 지난해 인천에 입단하며 오늘날 인천을 대표하는 선수가 됐다. 인천에서의 가장 기억이 남는 순간을 묻자 그는 “지난 시즌 38라운드 상주전(2-0 승)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했다. 무엇보다 간절히 원했던 잔류를 확정지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문선민은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고 전했다. 올 시즌 8라운드 수원삼성전(2-3 패)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수원과의 홈경기에서 골을 넣고 특별한 세리머니를 했다. 아내의 뱃속에 있는 2세를 위한 세리머니였는데 앞으로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최근 몰오른 골 감각의 비결? ‘끊임없는 노력’

지난 시즌에 비해 인천은 공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선민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이며 본인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내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문선민은 올 시즌 벌써 6득점 3도움(13R 기준)을 기록하며 맹활약 중이다.

지난해에 비해 득점력이 오른 비결에 대해 묻자 “슈팅 연습을 많이 했다. 특히 운동 끝나고 관찬수 골키퍼 코치님과 남아서 1대 1 상황을 많이 연습했다”고 전한 다음 “경기 중 그런 상황이 나오면 이전보다 더 자신감이 붙었다. 그러면서 골 결정력도 보완된 것 같다”고 답했다.

나와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선수는 ‘아길라르’

올 시즌 문선민은 아길라르와 좋은 호흡을 보이며 상대팀을 흔드는 모습을 자주 연출하고 있다. 아길라르에 대해 그는 “아길라르가 패스를 잘 넣어준다. 평소 자주 소통하며 서로 주문을 하고 발을 맞춘다. 그런 모습이 경기장에서 나오면서 좋은 시너지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선민은 “지난 시즌에는 주로 한석중 선수가 나에게 볼을 줬다면 올해는 아길라르, 고슬기 선수까지 패스를 많이 넣어준다”고 힘주어 말한 다음 “뿐만 아니라 무고사와 2대 1 패스와 같은 연계 플레이도 자주 나오게 되며 나에게 찬스가 많이 오는 것 같다”고 덧붙혔다.

나 문선민은 러시아 월드컵에 꼭 나가고 싶다

문선민의 최종 목표는 국가대표였다. 그런데 최근 갑작스레 대표팀에 발탁되는 영광을 맛봤다. 5월 21일 소집되어 약 2주간 점검 과정을 거쳐 살아남아야만 러시아로 향할 수 있다. 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최종 엔트리에 들어 반드시 러시아 월드컵에 나서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선민은 “최근 성적이 좋지 않음에도 꾸준히 지원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팬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날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만큼 많은 팬 분들이 경기장에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글 = 김명권 UTD기자 (iu_football@naver.com)



INCHEON
UNITED

문선민
FORWARD

1992년 06월 09일
172cm, 68kg



INCHEON UNITED EVENT

제2회 인천유나이티드FC배 축구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 안내



대상
초등부

김홍
장수초등학교
5학년(12세)



최우수상 초등부
김현준 신선초등학교 3학년(10세)



최우수상 초등부
김민재 굴포초등학교 4학년(1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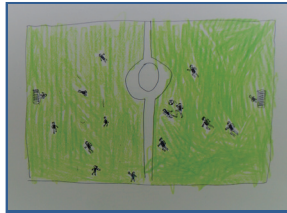
제2회 인천유나이티드FC배
축구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특선&입선

특선	홍석준	상일초등학교 3학년(10세)	입선	박성윤	굴포초등학교 1학년(8세)
특선	최윤희	초은초등학교 2학년(9세)	입선	한지민	영선초등학교 1학년(8세)
특선	이은율	도화초등학교 1학년(8세)	입선	최지혜	서화초등학교 1학년(8세)
특선	최화진	김주초등학교 6학년(13세)	입선	조유진	원동초등학교 1학년(8세)
특선	강태창	김주초등학교 6학년(13세)	입선	이윤우	하중초등학교 3학년(10세)
특선	김지한	마장초등학교 2학년(9세)	입선	이하준	청량초등학교 3학년(10세)
특선	김민재	경서초등학교 2학년(9세)	입선	조윤지	가원초등학교 3학년(10세)
특선	김태민	간재울초등학교 3학년(10세)	입선	김수아	서해삼육초등학교 3학년(10세)
특선	이지윤	예월유치원(7세)	입선	최재이	동명초등학교 1학년(8세)
특선	이서연	판타지아어린이집(6세)	입선	정재환	정각초등학교 3학년(10세)
특선	황현서	이화유치원(7세)	입선	정나린	미산초등학교 3학년(10세)
특선	정예원	재능유치원(7세)	입선	이 한	장도초등학교 1학년(8세)
입선	이혜주	송월초등학교 3학년(10세)	입선	문소연	용일초등학교 2학년(9세)
입선	장나윤	하늘초등학교 2학년(9세)	입선	김다원	선학초등학교 2학년(9세)
입선	강채원	도원초등학교 1학년(8세)	입선	김서하	한빛초등학교 3학년(10세)
입선	문채민	용원초등학교 2학년(9세)	입선	김재은	가양초등학교 1학년(8세)
입선	김사무엘	송천초등학교 2학년(9세)	입선	김탁현	동명초등학교 1학년(8세)



우수상 초등부
정재호
용일초등학교 2학년(9세)



우수상 초등부
김남우
명선초등학교 2학년(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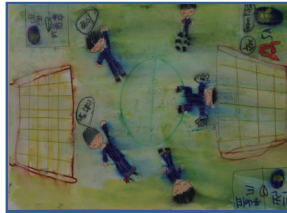
우수상 초등부
남하준
부평남초등학교 3학년(10세)



우수상 유치부
양희제
새싹유치원(7세)



우수상 유치부
최도아
성리병설유치원(7세)



장려상 초등부
김민서
부광초등학교 3학년(10세)



장려상 초등부
신은서
간석초등학교 1학년(8세)



장려상 초등부
김지욱
장서초등학교 2학년(9세)



장려상 초등부
이민규
해송초등학교 2학년(9세)



장려상 초등부
김민교
송현초등학교 5학년(12세)



장려상 초등부
정선아
정각초등학교 4학년(1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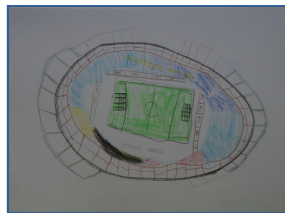
장려상 유치부
김승희
엘림유치원(6세)



장려상 유치부
김예진
참빛유치원(7세)



장려상 유치부
성현규
프라임명지유치원(6세)



장려상 유치부
최민성
미래클러린이집(7세)



입선 김주혁 경서초등학교 1학년(8세)
입선 김가희 장영초등학교 2학년(9세)
입선 김민재 김주초등학교 3학년(10세)
입선 이호준 동막초등학교 3학년(10세)
입선 황현재 부마초등학교 2학년(9세)
입선 김세윤 신광초등학교 2학년(9세)
입선 홍영기 병방초등학교 1학년(8세)
입선 지서현 경원초등학교 2학년(9세)
입선 김민우 서해삼육초등학교 1학년(8세)
입선 배제나 신희초등학교 2학년(9세)
입선 송재원 신정초등학교 1학년(8세)
입선 송현진 경원초등학교 2학년(9세)
입선 이서현 논현초등학교 3학년(10세)
입선 민태홍 수정초등학교 1학년(8세)
입선 박성민 경원초등학교 2학년(9세)
입선 이서연 장도초등학교 4학년(11세)
입선 이은성 신송초등학교 5학년(12세)

입선 이정연 송월초등학교 5학년(12세)
입선 박재은 청단초등학교 6학년(13세)
입선 강예진 서꽃초등학교 6학년(13세)
입선 구 상 명선초등학교 5학년(12세)
입선 김예은 장영초등학교 4학년(11세)
입선 정재원 용일초등학교 4학년(11세)
입선 이가빈 동막초등학교 6학년(13세)
입선 손예슬 간재울초등학교 4학년(11세)
입선 김민지 부인초등학교 5학년(12세)
입선 최지은 면우금초등학교 4학년(11세)
입선 김지유 마장초등학교 5학년(12세)
입선 손예은 간재울초등학교 5학년(12세)
입선 주해람 엘림유치원(7세)
입선 양서우 엘림유치원(5세)
입선 공효진 에이스화인유치원(6세)
입선 손은찬 신태양유치원(7세)
입선 이예원 재능유치원(7세)

입선 문혜원 박문유치원(6세)
입선 오재경 복사골문화센터어린이집(7세)
입선 민서현 산울림유치원(6세)
입선 차예나 호정숲속어린이집(7세)
입선 김주현 공작어린이집(7세)
입선 최유정 종달새어린이집(7세)
입선 문보경 피카소어린이집(6세)
입선 권다인 라트렌즈어린이집(7세)
입선 김승하 엘림유치원(5세)
입선 이서준 하은어린이집(7세)
입선 김서은 에이스화인유치원(6세)
입선 최지윤 예빛유치원(5세)
입선 박준민 선미유치원(7세)
입선 송윤진 경원병설유치원(6세)

인천유나이티드 하이트필바든존

하이트필바든존에서는
하이트진로에서 제공하는 맥주와
Feel 필바든치킨에서 제공하는 닭강정을
즐기며 경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닭강정은 맛보기용으로 일회용컵에 담아 제공됩니다.)



시즌권 회원 할인
(선착순 5테이블 / 예매 전용)

E/N/S 일반석	W 일반석	프리미엄
10,000원	7,500원	2,500원

정상가: 테이블당(2인) 30,000원

※ 1인당 가격

인천유나이티드 스카이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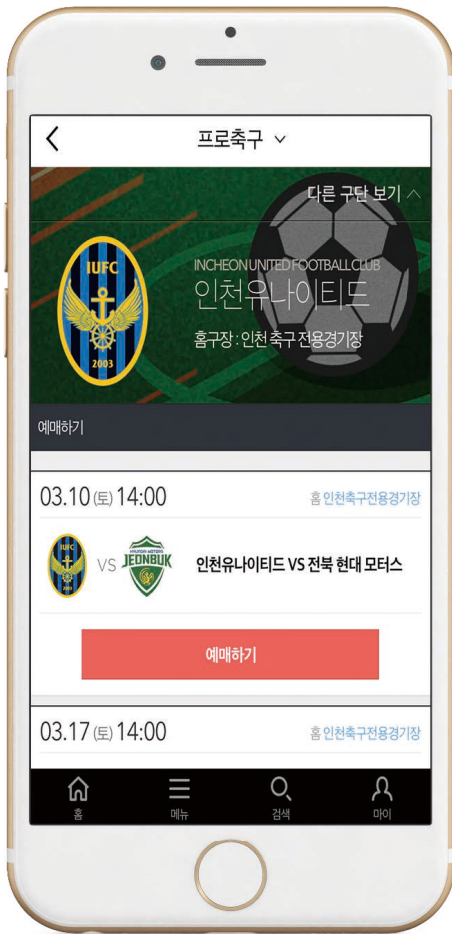
아늑한 공간에서 경기 관람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에서는
Meals on Wheel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음식과 다과를 즐기며
경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즌권 회원 할인
(선착순 6명 / 예매 전용)

E/N/S 일반석	W 일반석	프리미엄
20,000원	15,000원	5,000원

정상가: 성인 및 청소년 30,000원 / 어린이 20,000원



모바일 티켓 INTERPARK MOBILE TICKET

매표소 혼잡을 피하고 싶다면?
인터파크 모바일 티켓 APP을 다운받으면
입장권 발권 없이 입장 가능!



인천유나이티드 시민주주 정보 최신화 안내

인천유나이티드는 시민주주 정보 최신화 작업을 연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및 연락처를 비롯한 주주 정보 수정을 비롯하여 주주카드 재발급 등과 관련한 문의는 인천유나이티드 경영기획팀(032-880-5512)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OKIE INTERVIEW

‘중원의 사령관’ 임은수, “인천은 내게 많은 도움을 준 팀이다”

오늘날 인천유나이티드는 탄탄한 유스 시스템을 보유하기로 유명하다. 실제로 현 시점 프로 선수단(38명) 중 유스 출신이 9명이나 된다. 최근에 또 하나의 떡잎이 프로 무대에 입문했다.

지난 4월 22일 수원삼성과의 8라운드 홈경기에서 깜짝 선발로 출격한 ‘중원의 사령관’ 임은수가 그 주인공이다. 광성중-대건고를 거쳐 당당히 프로 선수로 자리매김한 임은수를 만나봤다.

내게 많은 도움을 준 ‘내 팀’ 인천유나이티드

사회인에게 첫 직장은 많은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듯 축구 선수들에게 있어서도 프로 데뷔 팀은 의미가 남다르다. 더군다나 입단한 구단의 유스 출신으로 단계를 거쳐 당당히 프로에 입단한 경우라면 더욱이 남다를 터. 때문에 임은수에게 인천은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을 것이다.

임은수는 “인천은 축구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팀이다. 그동안 자라면서 집도 인천이었고 축구도 꾸준히 인천에서 해왔다”면서 “프로에 와서도 타지생활 없이 오직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정신적으로 다잡아 준 팀이다. 항상 인천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올해 프로에 입단해 동계 훈련을 겪어보니 프로의 벽이 실감났다고 전한 임은수는 “프로는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니 자신감도 많이 떨어

졌었다”면서 “대건고 시절 코치님이셨던 임중용 선생님이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했다.

긴장감이 이내 자신감으로 바뀌었던 ‘데뷔전’

앞서 전했다 임은수는 지난 8라운드 수원전에서 프로 데뷔전을 가졌다. 임은수는 “경기 하루 이틀 전에 선발 출전을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고난 다음부터는 잠도 못 잘 만큼 떨림이 시작했다. 그리고 경기 당일 미팅까지도 떨었던 기억이 난다”면서 데뷔전 당시의 상황을 회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경기장에 본 임은수의 모습에서 긴장은 온데간데없고 노련하게 잘 풀어가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이에 대해서는 “경기장에 들어갈 때 까지만 하더라도 두렵고 긴장됐는데 막상 경기가 시작하니 긴장했던 것이 자신감으로 바뀌며 잘 치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11R 포항전, 12R 제주전에도 선발 출장하며 어느 정도 프로 무대에 적응한 모습을 보였다. 빠른 적응 비결에 대해 그는 “가장 쉬운 것부터 하려고 했다. 욕심 없이 내 역할만 충실하자는 생각으로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갔던 것이 비결인 것 같다”고 웃으며 답했다.

내게 많은 도움을 준 '내 팀' 인천유나이티드
프로 데뷔전을 앞두고 잠도 못 잘 만큼 떨려

가장 쉬운 것부터 하고자 해...내 역할만 '충실'
부지런하고 헌신하는 선수로 인정을 받고 싶다



고슬기의 침착함, 한석종의 마인드를 닮고파

올 시즌 인천은 여느 시즌보다 탄탄한 중원을 자랑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국가대표 출신으로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아길라르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미드필더' 고슬기와 김동석을 비롯해 한석종, 윤상호, 이우혁, 김석호, 임은수, 최범경 등 젊은 피도 즐비하다.

특히 임은수의 주 포지션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고슬기가 버티고 있다. 프로 무대에서만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 고슬기가 자리하고 있다. 임은수는 "(고)슬기형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선배님이다.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 탈압박과 여유 등을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그리고 임은수는 또 다른 경쟁자인 선배 한석종의 마음가짐도 닮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석종이형은 경기 중 활동량이 많고 무엇보다 볼을 정말 잘 찬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러면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려는 석종이형의 마음가짐을 배우고 싶다"고 전했다.

부지런하고 헌신하는 선수로 인정받고 싶다

임은수는 최근 홈경기에서 경기를 마치고 경기장을 돌며 인사를 할 때 소름이 돋았다면서 입화를 전했다. 그는 "S석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몇몇 서포터즈 분들이 내 이름을 외쳐주셨다. 그때 소름이 팍 돋았다"면서 "정말 감사했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제 갓 프로에 입문한 신인 임은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훗날 미래에 팬들에게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임은수는 "내 포지션(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도 그렇듯이 항상 부지런하고 헌신하며 팀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로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임은수에게 팬들에게 인사를 부탁했다. 그는 "프로에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계속 경기장에 나서서 팀이 이길 수 있게끔 보탬이 되고 싶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글 = 김명권 UTD기자 (iu_football@naver.com)





오직 인천만을 위한 디자인

폴로 셔츠 블랙 60,000원

집업 트레이닝 화이트(하계용) 100,000원

블루마켓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폴로 셔츠 블루 제품도 판매 예정)





PRIDE OF INCHEON

K LEAGUE 1 16 ROUND



7/11 (수)
19:30

K LEAGUE 1 19 ROUND



7/22 (일)
18:00

FA CUP 2018 32강



7/25 (수)
19:30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국철 도원역 / 수인선 승의역)

☎ (032) 880 - 5500
WWW.INCHEONUTD.COM



본 매거진 마지막장에 블루카페
500원 할인 쿠폰이 있으니, 인천
팬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